

5. 장마 홍수 속에서 건져낸 씨종자, 울릉도 황금 옥수수 (울릉도 토종 수집기 (1))

울릉도 홍감자가 박물관에서 관리자의 실수로 종자가 끊겼다. 그해 여름 우리는 3박 4일을 잡고 울릉도 토종 수집을 나갔다.

이번 울릉도 수집은 몇 가지 집중해서 초점을 맞췄다. 우선 무엇을 수집할 것인가에 발맞추어 홍감자 수확시기에 잡았다. 그리고 어디를 갈 것인가는 다음 두 가지를 참고했다.

첫 울릉도 개척단이 처음 정착한 곳을 중심으로 찾기로 했다. 우선 1883년 울릉도 개척단이 들어갔을 때 사람이 살던 곳을 우선 찾아보기로 한 것은 그곳이 척박한 울릉도에서 그나마 사람이 농사짓고 살만한 곳이었기 때문이었다.

1883년 4월, 고종은 큰 결단을 한다. 개척단을 보내 울릉도를 개척한 것이다. 혹자는 고종의 업적 중에 울릉도 개척이 제일 잘한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그전까지는 비록 조선의 땅이긴 했어도 봉금의 땅이었다. 불법으로 입도하여 배를 만드는 나무를 베어가는 버려진 땅이었다. 왜인들과 충돌하여 인명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이 울릉도였다. 이에 고종이 나서 개척단을 보냈다. 인용하자면 1차 30명, 뒤이어 24명, 합계 54명의 육지 주민들이 강원도 관찰사가 제공하는 식량 60석, 벼, 콩, 조, 팥들의 씨종자, - 감자와 옥수수가 없다는 것이 특이하다 - 소두 마리를 포함한 농사 도구와 무쇠, 솔 등의 생활 도구는 물론, 안전을 위한 화승총 두 정까지 지원받아 바다를 건너 울릉도에 입주했다. 이들은 다섯 곳으로 흩어져서 정착했다. 개간을 시작해서 3개월이 지난 후 약 310마지기의 땅을 개척하였다.

그들의 길은 바로 울릉도 농업이 길이었다. 당시 개척단은 어업은 생각조차 하지 않고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이들의 길을 따라 울릉도 토종 수집을 하고자 했다.

울릉도 개척단의 행로가 첫 번째 답사길이었고, 또 하나 참고 한 것은 2008년 토종 수집단을 이끈 안완식 박사가 수집한 농가를 찾아보기로 했다. 그래서 짧은 답사 일을 감안하여 울릉도의 서쪽 사면인 학포, 태하리, 현포, 서래마을을 중심으로 돌아보기로 했다. 물론 당시 토종을 지키고 계시던 분들을 한 분도 만나보지 못했다. 혹은 돌아가셨고, 혹은 농사를 포기하고 읍내로 내려가셨다. 시간도 흘렀지만, 그만큼 울릉도의 농업환경이 빨리 변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울릉도 토종 수집은 여러모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 울릉도 특유의 농지 구성과 농가 주택분포가 그랬고, 막연함이 또한 그랬다. 울릉도의 농가 분포가 변하기 시작한 시기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겠지만, 관광을 앞세운 소득 정책이 일조한 것은 분명한 듯하다. 관광에 맞춘 농가 소득은 생산력의 증대 요구와 자급에 초점을 맞췄던 울릉도 농업의 다양한 품종의 실종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이 결과 애초 울릉도 농가 분포는 토지에 맞춰 있었다면, 지금은 주거지와 농지와 분리되어 농가에 수집을 나갔을 때 일종의 ‘농사 지러 나갔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 이러한 막연함은 가끔 발걸음을 머쓱하게 만들기도 했다.

어쨌든 계획대로 우리가 울릉도에 도착하여 나리분지에 집을 풀었다. 특별히 나리분지에 집을 풀 이유를 한귀숙 선생이 운영하는 민박집이 있기도 했지만, 그분이 울릉도 토종인 홍감자를 맛의 방주에 등재한 분이기 때문이었다. 그분이 홍감자를 지켜오고 슬로푸드 음식 운동을 해온 이야기야 워낙 잘 알려져 나까지 보태서 다룰 필요가 없을 듯하다. 그분에게서 울릉도 토종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으나 생략하기로 한다. 그래서 한 선생님 댁에서 수집한 토종 이야기도 생략하기로 한다. 그러나 사실 울릉도의 토종은 나리분지로부터 시작되고, 나리분지를 통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우리는 호기롭게 나리분지를 떠나 황금 옥수수를 찾기

위해 학포로 향했다.

수집하러 갔을 때 토종을 가지고 있는 집을 찾을 때가 제일 난감할 때가 많다. 이건 막막하기까지 하다. 집은 있으되 사람은 없고, 사람은 있으되 토종이 있을지는 아무도 몰랐으니 무작정 돌진이 그 무안함을 감출 뿐이었다. 그런데 울릉도는 더했다. 아예 길만 보이고 농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 길로 가면 농사짓는 집이 나올까? 그러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며 올라가 간신히 집을 찾으면 마찬가지로 사람이 없고...

간혹 농가를 만나 들에 나갔다고 하면 그 들이라는 것이 또 얼마나 올라가야 할지 몰라 까마득할 때가 많았다. 하늘과 땅의 중간쯤이라고 생각하고 이곳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다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저만치 내려다보이는 만큼만 올라가면 하늘이 있지 않을까 하는 높이에 올라가면 겨우 작지만 평평한 땅이 나온다. 외지인이 바라보기엔 좁은 이곳이 울릉도에서 일어난 정도 살아본 사람들은 넓게 보일 땅에 서너 가구가 젖을 주는 곰처럼 바짝 웅크린 채 자리를 잡고 있다.

막막하다. 그러다가 우리가 찾아간 학포 통구미, 그나마 농사지를 만한 땅이 있는 곳이었다. 사정은 이곳도 마찬가지였다. 산은 있었으나 사람이 없었다. 저 산 능선 어디엔가 농사짓는 분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통구미 귀바위를 바라보며 무조건 올라갔다.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는 막다른 길에 도달하여 차를 돌릴 자리도 없는 곳까지 올라갔다. 몇 번이고 자동차를 앞뒤로 굴리는 바퀴 톱질을 하며 후진과 전진을 되풀이하며 간신히 차를 돌리려고 좌우를 살피는데, 어허! 헛간 옆쪽으로 한구석에 개간한 텃밭에 온갖 토종이 자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곳에서의 우연한 발견은 우리를 매우 놀라게 했다.

담배 이파리를 닦았다는 청상추와 아주 오래됐다는 열두줄박이 찰강냉이. 그리고 익으면 겉이 노랗게 되고 퍼득 큰 청오이 등이 있었다. 아내가 반갑다며 사진을 찍어가며 이름을 부르며 흥겨워하는데, 생각해보니 기억이 겹치면서 어디에서 들어본 듯한 작물이었다.

울릉도 수집 자료를 꺼냈다. 예상이 맞았다. 이 종자들은 안완식 박사께서 2008년 울릉도 수집하러 와서 박연조 할머니(당시 77세)를 만나 여러 가지 씨앗을 얻었다는 기록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다. 너무 신기하여 허락도 없이 상춧잎도 뜯어 먹어보고, 사진을 찍고 호들갑을 떨고 있는데 주인이 나왔다. 아무리 불러도 인기척이 없더니 우리의 두런거리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것이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물에 나갔다 막 들어와서 흥 감자를 캐러 가려고 헛간에서 준비하는 데 인기척이 들려 나와 봤다고 했다.

우리는 바쁘다는 사람을 붙들고 토종에 관해 물어보자 마지못해 집에서 보관하는 많은 토종을 보여줬다. 헛간에는 그의 토종 보물 창고였다. 올해 심지 못한 것은 내년이라도 심기 위해 창고 안에 남아있는 귀틀집에 따로 보관하기도 했고, 내년 종자는 창고 양지쪽에서 건조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인이 비가 올 것이라고 투덜대면서 감자 캐기를 재촉했지만, 귀 달고 몽개면서 찾지 못한 토종을 내놓을 때까지 속속들이 토종을 구경했다. 그리고는 참아왔던 궁금했던 것을 물었다.

- 혹시 어머니가 박연조 어르신 아니신가요?

- 아니,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했다. 다만 듣기로는 당시의 집 위치와 약간 달라서 주저했다 하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조금이라도 편하여지려고 이곳으로 내려왔다는 것이다. 옛집은 지금은 농사를 지러 올라갈 때 쉬는 농막으로 쓴다 했다. 당시는 몇 채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 내려왔다고 했다.

이런 신기한 일도 있었다.

이분들이 들려주기를 열두줄백이 강냉이는 어머니가 서래 마을에서 가져다 심었다 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분 창고에는 안 박사님이 당시에 수집한 것 말고도 쪽파와 감자, 그리고 다른 토종 종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바쁘다는 그분을 잡고 한참이나 광을 뒀으며 토종을 구경했다.

몇 가지 토종을 수집하고는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서래 마을로 향했다. 열두줄 강냉이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서래마을은 쉽게 보여주지 않았다. 하늘 아래 첫마을이라지만, 그 입구를 종잡을 수가 없었다. 첫날은 실패했다. 다시 이튿날 다시 찾았다. 울릉도에 대한 선입견으로 첫날은 그 끝에는 밭이나 있을 것이지 마을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판단으로 내려왔었다. 이튿날은 그 선입견에 속아보자는 심사로 가파른 낭 어덕길을 올랐다. 그 꼭대기에 교회가 있는 마을이 나올 줄이야...

작은 분지였다.

그곳의 사람들은 매우 여유롭고 한가했다. 물론 낯선 사람들이 마을로 들어섰으나 매우 친절했다. 외진 마을 특유의 경계심이라고는 보이지 않았다. 설 자리를 내주고 이야기 자리도 툭툭하게 흔쾌히 내주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서래마을에는 황금옥수수는 그만두고 그곳에는 어떤 토종도 남아있지 않았다. 후일담이지만, 오히려 울릉도 수집을 마치고 박물관의 토종을 보내줄 정도였다. 씨앗은 수집 못하고 이야기만 수집한 경우였다. 이야기 수집도 박물관으로써는 아주 중요한 수집 중의 하나이긴 했다. 그 이야기 때문에 오랜 시간 서래마을에 머물렀다.

- 에이, 그걸 왜 없애셨어요?

우리는 애교스러운 양탈로 아쉬움을 털어내자 그들도 함께 아쉬워했다.

-그게 모르것네요. 우리도 왜 그 어렵게 지킨 토종을 버렸는지...

- 그게, 옥수수는 우리들에게는 생명줄이었지. 개척단이 처음 들어와서 종자를 생명줄이라 붙들고 있었다지...

- 언제든 아래 상회만 내려가도 종자를 살 수 있으니까 그들이 끝까지 지켜줄지 알았지, 뭐!

- 그건 그래요...

힘이 없었다. 그리고는 한참 동안 말이 끊겼다. 그 시간이 마치 반성의 시간인 듯 그들은 고사리 말린 것만 만지작거렸다.

- 개척단요?

얘기는 자연스럽게 개척단으로 흘러갔다.

- 그런 우리 윗대 할아버지가 개척단으로 들어 온 분이세요.

생각지 않은 울릉도 개척단 후예를 만났다. 처음에는 모두 나리분지에 짐을 풀었지만, 새로운 농토를 찾아 서래마을로 들어온 경우였다. 작지만 나리처럼 분지였다. 그들은 아버지한테 들은 개척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려주었다.

그것은 행운이었다. 울릉도에서 울릉도 개척단 후예들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다.

개척단이 처음 울릉도에 들어올 때 가지고 온 식량은 씨종자를 제외하면 턱없이 부족했다.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야 했다. 이곳으로 이주할 때야 배고픔 정도는 해결될 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이곳은 어디든, 누구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줄 수 없었다. 이러한 배고픔은 50년이 흐른 1934년까지도 변하지 않았다.

1934년 12월 12일 자 동아일보 기사를 보자.

『이 시기 주민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였다. 옥수수를 맷돌에 쌀알 절반 크기로 갈아 감자와 함께 밥을 짓듯이 물을 부어 익혀 먹었다. 흉년이 들면 산에서 갠 나물로 끼니를 이었다.

당시 먹었던 산마늘이 울릉도에선 '명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로 불리는 것만 보더라도 당시 식생활이 얼마나 열악했었는지를 짐작케 한다.』

당시에 울릉도를 찾은 기자는 이들의 열악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문턱에 다다르니 주렁주렁 엮어서 달아놓은 미역취가 눈에 띈다. 부지깥이나물을 말려 향아리에 담아 놓은 것도 여기저기 있다. 부잣집에서 벼섬을 짊어 놓듯 어느 집이나 두 가지 나물 준비가 돼 있다. 장 씨가 점심으로 죽 그릇을 가지고 나와 기자의 눈앞에 내민다. 나물 건더기만 뽁뽁한 푸른 죽이다. 이 죽을 숟가락으로 뜨면 한 술에 곡식 알맹이라곤 강냉이 두세 조각이 없어진다. 감자 조각 빠져 넣은 것은 세 술 만에 한 조각 담길까 말까...』

그리고 그 후 30년이 지나도 생활은 변하지 않았다. 마찬가지였다. 그들에게 옥수수와 감자는 곧 생명줄이요, 목숨이었다. 어느 정도인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은 짐작할 수 있다. 종자를 지키는 것이 이렇게 처절할까?

나리분지가 눈이 많이 온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비가 많이 온다는 이야기는 매우 생소하게 들렸다.

- 눈 속에서 씨앗을 지키기란 사람을 지키는 것보다 쉬워. 그러나 물속에서 지킨다는 것을 상상이나 했을까.

어느 해가 나리분지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열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장맛비가 내렸다. 그러더니 점점 물이 불어 밭으로 넘치기 시작했다. 눈이 오길 밤새우면 창문을 덮고, 한낮에는 지붕을 덮는다는 이야기는 들었어도 비 이야기는 전래 이후 들어보지 못했다. 사람들은 설마설마했다. 더구나 빠지기 쉬운 수구가 한쪽에 있었으니 어느 정도 안심하고 밤을 새웠다. 그러나 밤을 새우기도 전에 집에 들이닥친 빗물, 사람들이 피신하기 시작하고 높은 곳에서 밤을 지새웠다.

숲속에서 날을 새고서야 그들이 깨달은 것은 나리분지 전체가 물에 잠겼다는 사실이었다. 그 물속에는 그들이 1년을 버틸 식량인 옥수수가 고스란히 잠겨있었다. 옥수수가 머리끝이 잠겼다 나왔다 하며 바닷물처럼 일렁였다. 어쩌면 내년에 심을 종자조차도 건지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쌓이기 시작했다. 누구랄 것도 없었다. 톱을 든 사람은 뗏목을 만들기 위해 나무를 베어왔고, 낚을 든 사람들은 모두 긴 창대 끝에 낚을 묶었다. 뗏사람들이 미역을 따는 갈고리 도구였다.

사람들이 뗏목을 띄웠다. 출렁일 때마다 물 위에 뜬 옥수수 머리끝이 물 밖으로 나오면 한 사람이 머리채를 잡고 한 사람은 물 깊이 갈고리를 넣어 옥수수 대를 잡아채 당겼다. 그렇게 여문 옥수수를 찾아 한나절을 뗏목을 타고 돌아다녀 겨우 집마다 종자할 분량을 찾았다. 그렇게 지켜온 옥수수가 나리분지 울릉도 황금옥수수였다. 그때 건져 지킨 옥수수 종자가 아마 지금 울릉도 전역에 퍼졌을 것이란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우리는 서래 마을의 황금옥수수가 나리분지에서 왔다는 것을 알았다. 결국은 토종을 수집하다 보면 울릉도 토종은 나리분지에서 시작하여 나리분지에서 끝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아닌 게 아니라 한 집사한테 옥수수 얻으러 가야겠네.

그들은 개척단으로 들어 온 할아버지처럼 다시 울릉도 토종의 개척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서래마을을 떠났다.